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 2

오키나와에서의 지진재해 보고 집회와 그저께 도쿄에서의 모임에도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요전에는 일반 스포츠사로부터 취재를 받았습니다. 지진 재해 이후 거의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교회에서 5 킬로 범위 내에 있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뉴스가 매일 방영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특수한 환경 때문일까요? 어쨌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의 지진 재해로 처음으로 협장격차라는 말을 알았습니다.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때 지진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재건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욕을 잃고 시름없이 우울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로 마치 가위를 벌린 것같은 격차가 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참고 : 협장격차(缺状格差)란 두 산업부분에서의 생산물 가격차가 현저히 벌어진상태를 의미함

우리들 지역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풀숨으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짓눌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지요. 무너진 기왓장을 걷어내거나 집안을 정리할 수도 없고 비가 새고 있는 집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건지요? 재건을 향한 고우(Go) 사인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재건에서 제외되어 3 월 11 일로 시간이 멈춰진 채입니다. 시름에 잠겨 슬픔으로 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만약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어딘가에 크리스천 마을을 세우고 무샤노코우지 사네아츠(武者小路實篤)같은 마을이나 돈덴헤이에 의한 홋카이도 개척이나 브라질의 대지에서 크리스천의 이상향 만들거나 아미슈(AMISH)나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지하교회든 무엇이든 공동체를 만들어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순간 순간 머리를 스칩니다. 어딘가에 토지를 구입해 양로원을 세워 연세드신 분들을 모시고 성도님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일을 창출하고 맨션을 지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보니 우리교회가 4 월부터 NPO 법인을 취득하여 Day Services(노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캠프장은 가끔 양로원인지 노인주간보호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노인으로부터 갓난아기까지 서로 함께 의지하며 도우면서 살아가는 커뮤니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전에 장례식에서 만난 성도님이 '선생님 설마 그 쪽에 정착하시는 건

아니지요?’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직 지진 재해로부터 2 개월 정도니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지요.

시편 126 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온의 수도는 우리들의 그리운 교회가 있는 고향이 아닐까? 그 곳에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드디어 환희의 눈물과 감동으로 들어갈 그 날 그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 몇 번이고 자기자신에게 사기를 돋우며 지금 서있는 자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들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 편

5 월 11 일(수) 오쿠타마(奥多摩)에서

추신: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주말에 지진 재해후 4 번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4 차례의 장례식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제는 여섯 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몇 사람이 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셨습니다. 앞 장에서도 서술한 바 있습니다만

앞 쪽으로 눕히는 것이 좋은 지 뒤로 하는 것이 좋은 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앞 쪽으로 입니까? 뒤 쪽으로 입니까?’라고 한 분 한 분 물어볼 때마다 목욕탕에 뿔뿔이 둘러 선 사람들의 ‘와하하’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방 황야에 장마로 인해 거대한 물살이 흘러 넘침같이 우리들도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며 ‘와하하’하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겠지요.

5

월 16 일(월)

参考

武者小路 実篤 (무샤노코우지 사네아츠) : 1885 년 5 월 12 일—1976 년 4 월 9 일
일본의 소설가로 조화를 이룬 UTOPIA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18 년 현재 児湯郡木城마을과 1939 년 埼玉県入間郡毛呂山마을을 세웠다. 1951 년에 문화훈장을 수상함.
대표작으로는 ‘우정’ ‘사랑과 죽음’등이 있다.

屯田兵(돈덴헤이) : 메이지시대에 홋카이도의 경비와 개척을 주 임무로 한 병사와 그 부대를 이른다. 1874 년에 설립되어 1904 년에 폐지되었다. 생활규칙이 엄격하고 군사훈련을 겸한 농업과 도로 수로등의 개발공사와 경비 등의 임무를 맡았다.

브라질 대지에 크리스천의 이상향(理想郷) : 17 세기 초에 평화와 이상향을 추구함과 동시에 구아라니 족을 전도하기 위해 SOCIETAS IESU 회가 여러 곳에 전도소를 설립했다. 현재 구아라니 SOCIETAS IESU 전도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AMISH : 미국 펜실버니아주 중서부나 캐나다 온타리오주등에 거주하는 독일계 보수파 종교집단으로 이민당시의 생활양식을 고수하며 농경과 목축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고 있다.

CAPPADOCIA : 페르시아 제국후기로부터 로마제국 등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해 왔으며 현재 터키공화국 영내에 있는 카파도키아(CAPPADOCIA) 에는 여러 지하도시가 있어 초기그리스도 교도의 은신처로 사용 되어왔다. 4 세기 경 카파도키아 신부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철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